

폐기물 처리사업 컨소시엄 참여

주식공모 참여사에 설명회 가져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유공빌딩 대회의실에서 선경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관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문제가 협회 회원사에게는 물론 업계는 업계의 현안 문제였던바 협회는 발족 초기부터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공동처리장 건설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여러 제약으로 협회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당초 계획을 수정,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경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다.

컨소시엄 참여 방법은 선경그룹 계열사로 이 사업의 주체인 선경클린텍의 유공 지분증 92퍼센트에 대하여 포장협회를 비롯한 8개사(단체)가 일정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5억원 규모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현재 30여 회원사가 참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고병룡 부장은 3월중에 컨소시엄사를 설립한 뒤 선경클린텍을 선경그룹에서 분리하고 일정에 따라 ▲1차 유상증자 ▲수권자본금 증액 ▲2차 유상증자(94년 5월초) 등을 통해 독립회사를 설립, 본격적인 폐기물 처리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병룡 부장의 설명에 의하면 새로 설립될 폐기물 처리사업체는 공장부지 15,000평에 소요자금이 170억, 처리규모 100톤 정도로 계획되고 있다.



▲ 포장협회는 지난 3월 9일 유공빌딩 대회의실에서 선경그룹과의 폐기물 처리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부지 위치로는 경기도 화성지역을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폐기물 처리사업의 실제적인 공장가동은 내년 말이나 97년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물론 일반 폐기물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협회 가입 회원사 늘어

잉크·은박업체 등 9개사

한국포장협회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금양화학 등을 비롯한 9개업체의 협회가입을 승인했다.

포장협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기존 연포장중심의 협회운영에서 포장 전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하고 포장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한바 있었다.

이번에 가입한 9개사는 그라비아인쇄용 잉크제조업체 6개사와 알루미늄호일 및 방습지 생산업체 3개사로 지난 2월부터 협회가입을 추진해왔다.

포장협회는 앞으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회원사로 가입시켜 협회 규모를 늘리고 각종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명실공히 포장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입한 신규회원사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 양 학 학

OPP필름용 잉크, 나일론필름용 잉크, PET필름용 잉크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79년에 설립됐다.

금양화학은 연간 OPP필름용 230톤, 나일론필름용 150톤, PET필름용 100톤, PE필름용 60톤, 지용 60톤을 생산하며 설비현황



▲ 금양화학 대표 박애숙

을 보면 샌드밀, 다이노밀, 3본롤, 디스프레서, 자동포장기 등이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3억원이며 92년도에 1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대표는 박애숙씨이며 포장업계 경력은 5년. 회사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17명이다.

대 일 알 미 늬 (주)

84년에 설립된 대일알미늬는 알루미늄 은박지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대일알미늬의 자본금은 26억원이며 지난해 내수판매 23억원, 수출 12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본사와 공장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에 있으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이상학 대표가 지난 2월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41명이다.

알루미늄호일의 연간 생산량은 1,350톤이며 설비로는 압연기, 연마기, 소둔로, 후박슬리터, 점도측정기, 두께측정기 등이 있다.



▲ 대일알미늬(주) 대표 이상학

동 일 알 미 늬 (주)

동일알루미늬는 지난해 내수판매 42억8천8백만원, 수출 94억3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주 생산품목은 알루미늄 은박지이다. 8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충남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알루미늄호일을 비롯한 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5,800톤이며, 압연기, 슬리터, 소둔로, 코팅기, 연마기 등을 설비해 놓고 있다. 대표이사는 정재현씨가 맡고 있으며 종업원은 139명이다.



▲ 동일알루미늬(주) 대표 정재현

(주) 명 성 산 업

인쇄용 잉크를 생산하고 있는 명성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45억원이며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8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8명이다.

연간 그라비아인쇄용 잉크 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명성산업은 다이노밀, 펄밀, 3분롤, 수지용해교반기, 유량계량기 등을 설비해 놓고 있다. 대표이사는 신정열씨로 포장업계 경력 10년인 중견 기업가이다.



▲ (주)명성산업 대표 신정열

삼 광 잉 크 제 조 (주)

그라비아잉크 및 페인트를 생산하는 삼광잉크는 92년도 내수판매 20억2천8백만원, 수출 1천9백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8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경기도 김포군·읍 풍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인치 3분롤, 호리철탄밀, 바스켓밀, 수지교반탱크 등을 갖추고 2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삼광잉크는 BOPP잉크 50톤, PET잉크(1액형) 5톤, PET잉크(2액형) 3톤, 지류용 솔벤트형 16톤, 지류용 톨루엔형 16톤, S.M.프리머 12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다. 김희용 대표이사는 포장업계 경력 25년이나된 원로이며, 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 삼광잉크제조(주) 대표 김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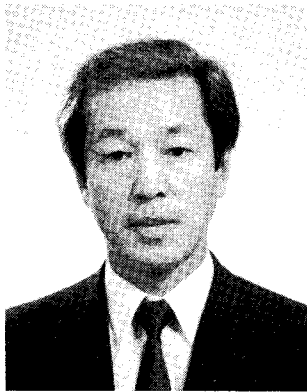
(주) 삼성잉크

삼성잉크는 77년에 설립되어 그라비아잉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92년도 총 매출액이 44억3천만원에 이른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그라비아잉크 연간 생산량이 2,000톤이다.

주요 생산설비로는 유압롤러, 다이노밀, 스탠드밀, 유압믹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32명이다.

박영식 대표이사는 포장업계 입문한지 20년의 경영인이다.



▲(주)삼성잉크 대표 박영식

25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흥시 정왕동에 공장을 갖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OPP잉크 460톤, PP잉크 30톤, 세로판외 TR잉크 41톤, TR-R 이액형잉크 251톤, TSC전사잉크 279톤, KP지용잉크 83톤, GNC P.E. 포장지잉크 112톤, 기타 140톤이다.

대표이사는 권영신씨이며 포장업계에 17년동안 몸담아왔다. 종업원은 22명.



▲태영화학(주) 대표 권영신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삼영잉크는 71년에 설립된 잉크업계의 거목으로 자본금이 13억4천7백만원이며, 92년도에는 내수 1백60억3천3백만원, 수출 6억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종업원만도 143명에 달하는 회사로 제관도료 및 인쇄잉크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생산설비는 샌드밀, 롤러, 디솔버, 아트리터, 호이스트, 교반기, 스파크라 여과기 등이 있다. 김시성 대표이사는 포장업계 경력이 23년으로 잉크업계의 산증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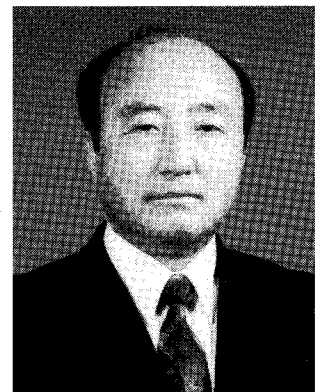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대표 김시성

자본금 3억원으로 지난 72년에 설립된 한신화성은 방습지와 천막지를 연간 1,400톤, 900톤씩 각각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본사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이 회사는 생산 주요 설비로 코팅기계, 텐덤, 카메트, 슬리터기 등이 있다.

92년도 총 매출액이 50억원인 한신화성은 포장업계 경력이 25년인 계문해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한신화학(주) 대표 계문해

태영화학(주)

OPP, PP 등 그라비아잉크를 생산하는 태영화학은 80년에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1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92년도에